

은행

산업이슈 브리프 |

Check Point

- 수신금리 하락으로 2월 신규 NIS 반등
- 대출금리 상승 폭 억제
- 1Q 은행권 NIM 축소(평균 -5bp 이상)

2월 가중평균금리 동향: 1Q 은행권 NIM 축소

Analyst 전배승 _ 02 3779 8978 _ bsjun@ebest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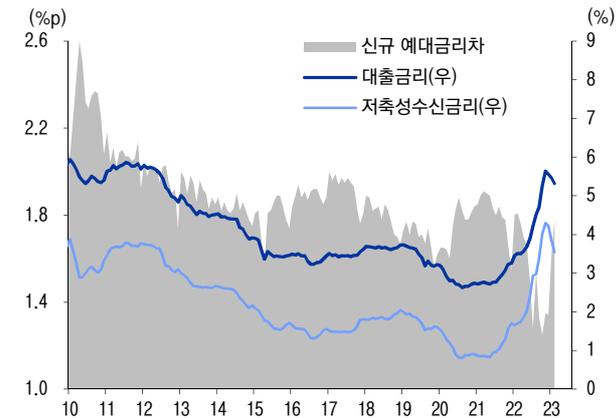
2월에도 큰 폭의 신규 수신금리 하락. 신규 및 잔액 예대금리차 상승

- ▶ 2023년 2월 중 예금은행 신규 예대금리차는 1.78%p(총대출-저축성수신)로 전월 대비 15bp 상승하며 1월(+29pb)에 이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감. 지속 하락하던 신규 예대금리차는 최근 2개월 큰 폭의 반등으로 전년동월 수준을 회복. 이는 연초 이후 은행권 수신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한 영향이며 2월 중에도 신규 저축성 수신금리가 29bp 하락하며 대출금리 하락 폭(-14pb)을 크게 상회했기 때문
- ▶ 은행수지에 보다 유의미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총대출-총수신)의 경우 2.60%로 전월대비 2bp 상승하며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다만 총수신이 아닌 저축성수신을 기준으로 한 잔액 예대금리차(신규 예대금리차 산식과 동일)는 전년동월 대비 25bp 낮은 수준을 기록 중. 잔액기준 수신금리는 지난 1월 11bp 상승에 이어 2월에도 3bp 추가 상승
- ▶ 2월 중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5.22%로 전월 대비 25bp 하락하며 1월의 -13bp에 비해 하락 폭이 확대됨. 주담대 금리의 경우 2bp 하락에 그쳤으나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 66bp나 하락. 은행채 5년, 코픽스 금리 등 가계대출 지표금리가 하락한데다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압력과 수요부진으로 가산금리가 축소되며 가계대출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
- ▶ 기업대출 금리의 경우 2월 신규취급액 기준 5.36%를 기록하며 전월대비 11bp 하락.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대출금리 하락 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절대수준으로는 가계대출 금리를 14bp 상회. 이는 2020년 2월 이후 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코로나 국면 이전으로 가계 및 기업대출 가산금리 수준이 복귀했음을 의미

1Q 은행권 NIM 축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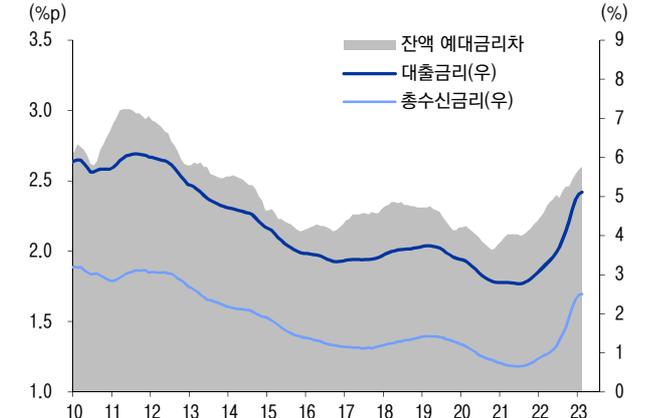
- ▶ 신규 및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확대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은행별로 살펴보면 1~2월 순이자마진은 평균 5bp 이상 하락한 것으로 파악됨. 한은 통계와의 차이는 정책대출 취급 등의 영향으로 풀이됨. 대출금리 상승 폭이 제한되는 가운데 잔액기준 조달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은행권 NIM 축소가 나타나고 있음
- ▶ 대출수요 부진과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가산금리 확보가 쉽지 않은 여건.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도 은행권 NIM 축소압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그림1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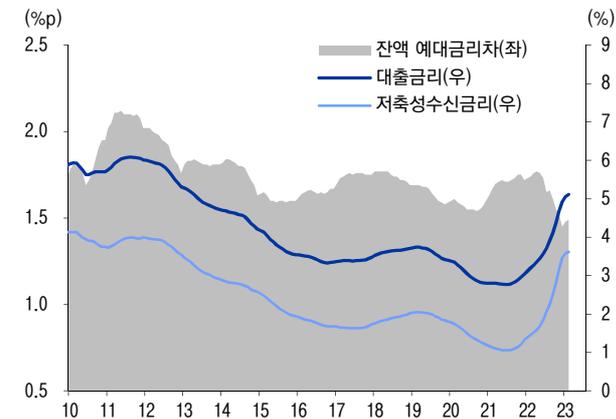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총수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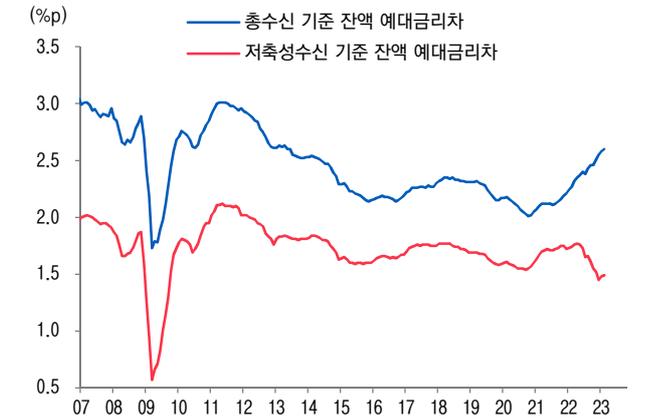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저축성수신 기준)



자료: 한국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총수신 vs 저축성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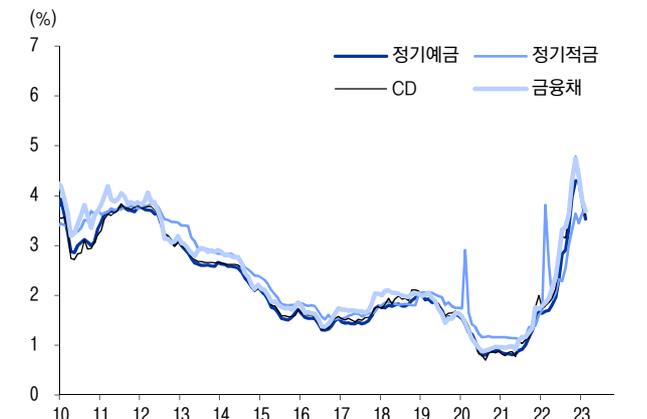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가계대출 금리와 기업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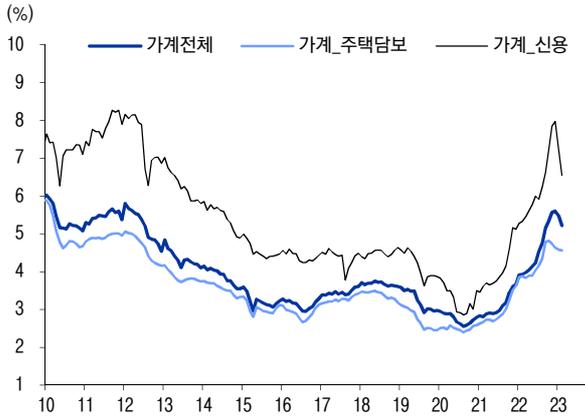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조달금리 추이(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가계대출 부문별 금리(신규)



자료: 한국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기업대출 부문별 금리(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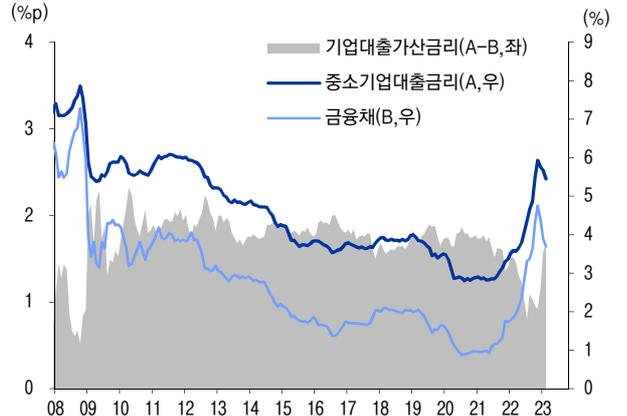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가계대출 가산금리(신규)



자료: 한국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기업대출 가산금리(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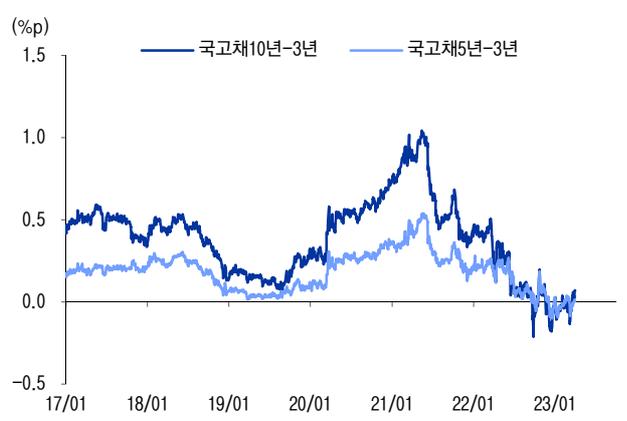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장단기금리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1.3% 8.7%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20%에서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2. 4. 1 ~ 2023. 3.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